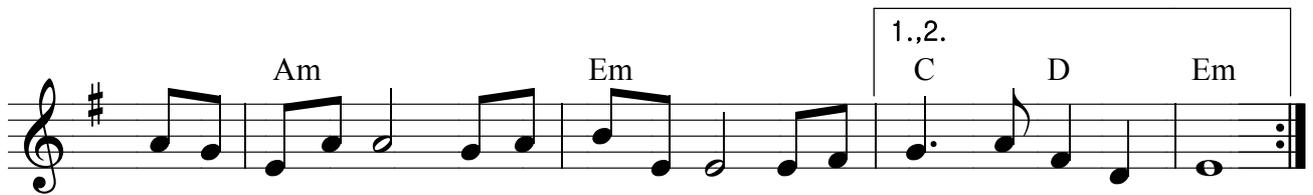


Kurt Kaiser 작사, 작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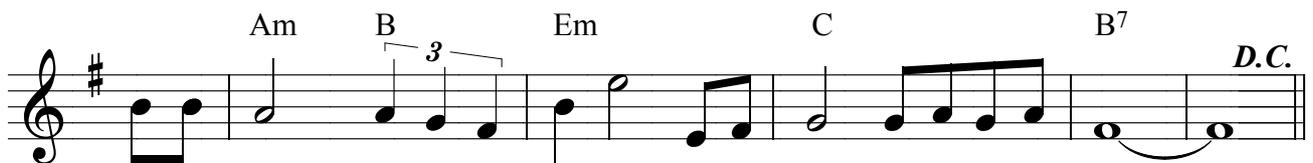
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
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
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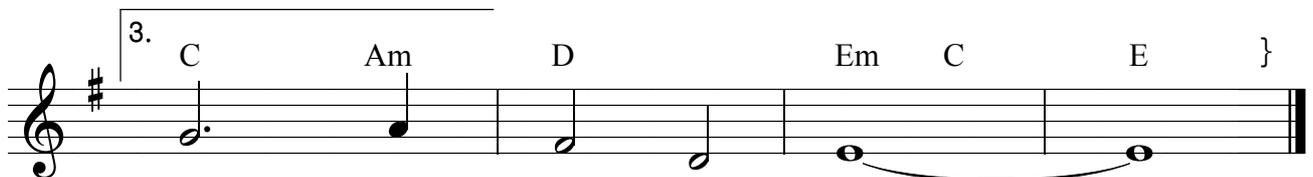
주님 앞 에 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 이 네
 세상 쾌락을 찾아 봤으나 고통 뿐 이었다 네
 그가 내게와 나를 구했네 진정



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



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-



기쁜 날 이 네 -